

2019년 나주시의회 공무국외 연수보고서

2019. 11. 4. ~ 11. 9.(4박 6일) / 호주



나주시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국외연수를 떠나야 하는 이유(김선용 의장 기고)	3
III. 호주 기초자료	5
IV. 국외선진정책 발굴 현지조사(공식방문)	8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세계 최대 규모 목지센터	8
○ 웨슬리미션 노인복지센터(알렌 워커 빌리지)	8
■ 농촌 6차 산업분야의 선진지	17
○ 포스트테팜 와이너리(와인농장)	17
■ 해외 지방의회 선진 정책 비교 연구	23
○ 블랙타운시티 시의회	23
■ 농산물 유통시스템 현황 조사 견학	28
○ 호주 과일도매시장	28
V. 역사·문화·관광자원 선진지 비교견학	37
■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활용화 우수사례	37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포스트테팜 사막	37
■ 도시경관 조성 선진사례	39
○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 하이드파크 등	39
VI. 연수는 숙소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49
■ 1일 1평가 간담회(4회)	49

2019년 나주시의회 공무국외 연수보고서

I 연수 개요

■ 연 수 국 : 호주

■ 연수목적

- 국외 지방의회 방문을 통해 선진 제도 및 정책을 견문하고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 모색
- 지역현안과 관련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해 지역발전 방향 모색
-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외 선진관광자원 비교견학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도모

■ 연수개요

- 기 간 : 2019. 11. 4.(월) ~ 11. 9.(토) / 4박 6일
- 대 상 자 : 나주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구 분	직 위	성 명
의 원 (10명)	의 장	김선용
	부 의 장	윤정근
	상임위원장	김영덕, 강영록
	의 원	김철민, 박소준, 임채수, 이상만, 이재남, 김정숙
의 회 사무국 (7명)	국 장	이재승
	전 문 위 원	이종열
	의 정 팀	김관완, 공민영, 윤성삼
	의 사 팀	유기현, 정단비

■ 주요일정

일정	세부 일정	비고
제 1 일 11. 4(월)	나주시의회 → 인천공항	이동
제 2 일 11. 5(화)	시드니 도착 ■ 공식방문 : [WESLEY MISSION 웨슬리미션 소속 노인복지센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 복지센터 방문 ■ 공식방문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관광활용화 사례 조사	
제 3 일 11. 6(수)	■ 공식방문 : [포트스테판 와이너리] 농촌 6차 산업 분야 선진지 견학 ■ 공식방문 : [포트스테판] 자연환경(사막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한 관광사업 시찰	
제 4 일 11. 7(목)	■ 공식방문 : [블릭타운시티 시의회] 해외 지방의회 방문 견학	
제 5 일 11. 8(금)	■ 공식방문 : [SYDNEY Markets UNITED FRUIT CO PTY LT(과일도매시장)] 선진국 농산물 유통 시스템 견학 ■ 도시경관 현장 탐방 : [도시 풍경 및 도시디자인 비교 견학] - 오페라하우스(세계문화유산) 내부관람(호주를 대표하는 종합극장) - 로얄 보타닉 가든(시드니 왕립 식물원) - 하이드 파크(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 & 세인트메리대성당	
제 6 일 11. 9(토)	시드니 → 인천공항 → 나주시의회	이동



국외연수는 또 다른 현장의
실체적인 풍경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삶을 조직해가는 정치행위의
연속이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삶에 관한 이야기이며, 정치행위라는 것은 우리 삶을 조직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대의정치는 삶을 조직하는 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며 정치행위에 본질이 아닌 부분적 속성과도 같은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치행위가 먼저 생겼지 민주주의 제도나 대의정치라는 시스템이 먼저 생긴 것은 아니다.

정치행위라는 일이 시민의 삶을 조직하는 일인 만큼 정치가가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시민의 여러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가져야 하고, 이는 삶에 대한 지극한 관심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바른 정치행위를 위한 공부란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어야 한다.

삶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있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문학과 영화 등을 보고 익혀야 하고,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정치행위는 결국 인문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공부는 대개 책으로 얻은 지식이어서 추론과 상상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삶의 실체를 이해하고 조직해야 하는 정치가에게 가장 유효한 공부는 바로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공부다. 현장으로 떠나는 공부를 통해 만나게 되는 다른 이들의 삶의 실체적 풍경은 그 전부가 정치행위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정치가가 풀어야 할 문제들의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바로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공간과 일상의 확장을 위한 떠남! 그 자체가 중요한 공부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익숙한 공간을 머물기를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일을 핑계로 외국에 나가 여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출장” 소위 말하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좌고우면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심플(Simple)해질 수 있다. 나주를 벗어나 새로운 땅에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정치행위로 이루어진 삶의 실체적 풍경을 확인하고 시민의 삶과 일상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행위의 연장이자 공부하는 연수이기 때문이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에 있다.

또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뜻밖의 선물 같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는 늘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그 누군가로 인해, 우리는 그 누군가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 누군가가 되어달라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꿈이 없는 이들에겐 단지 바로 앞의 파도만이 보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파도 너머 대륙만을 보며 가고 있는 정치가이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준비만이 기회를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무엇을 봐야할지, 무엇을 바꿔야할 지를 알고 있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법이다. 나주에서의 경험만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깊은 사유!

지식, 해석, 경험, 느낌, 상상, 통찰을 통해 물어봐야 한다. 스스로에게, 삶의 실체적 풍경 속에서! 던지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멋지게 낚아챌 수 있다면 기회는 생각지 못한 나주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한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떠나라!

■ 일반현황



- 국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도 : 캔버라(Canberra)
 - 인구 : 약 2,400만 명
 - 면적 : 768만km²(한반도의 약 35배)
 - 민족 : 앵글로색슨 80%
아시아·원주민 및 기타 20%
 - 종교 : 기독교 67%, 무종교 26%, 기타 7%
 - 언어 : 영어
 - 기후 : 대륙성 기후
- ▶ 2012년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조사에서는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나타남

■ 정치 경제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이며, 총독이 대리(식민통치)
 - 수상(국민투표), 수상이 실제 정치함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 76석, 하원 150석)
- **통화** : 호주 달러(AUD)라고 부르며 기호는 A\$, 5종류의 지폐와 6종류의 동전
- **1인당 GDP** : \$6만 1,219(세계 6번째로 높음), 대표적 선진국
- **자원** :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가 넓고 기후가 다양하여 천연 자원이 많다.
이 자원들을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거나, 또는 이를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 산업 또한 발전하고 있다. 호주의 양·밀·캥거루 등 목축업이 이 나라 산업의 중심이며, 광업으로 보면 국토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 사회 문화

- **인구정책** : 오랫동안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를 꾀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급속한 자원 개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또한 1930년대의 낮은 출생률에 기인하는 인구 구성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민 수용정책이 채용되었다. 이탈리아·그리스·네덜란드·독일 등지로부터의 이민이 많다. 한편 골드러시 때의 중국인 채광부와 사이에 일어난 노동력의 덩핑·생활 정도의 저하 등의 문제가 얹혀서 발생한 백호주의 정책이 최근까지 채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론과 아시아로 눈길을 돌린 이 나라의 입장 등으로 백호주의 정책이 파기되었다.
- **복지국가** :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복지국가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고령자·신체 장애자 등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병약자·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수당 등이 있다. 그 밖에 여러 복지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주택정책이 잘 되어 있어 2008년 기준으로 호주의 주택 보급률은 70%를 조금 웃돌아 세대의 약 25%의 정도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노동인권**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동조건을 몇 가지 갖고 있다. 그들은 일년에 4~5주의 휴가와 연중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다수의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 또, 크리스마스과 부활절 외에,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농업전시회, 여왕의 생일, 그리고 멜버른 사람인 경우에는 이 나라 최대의 경마행사인 '멜버른 컵' 경기 때도 근무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찍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5시면 끝마침으로써, 몰려오는 파도 옆의 백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일광욕을 하는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고 있다.
- **축제** : 오스트레일리아는 수백 개의 국립공원만큼이나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벌어지는데 마디그라 축제, 패션축제, 애들레이드 예술축제, 캔버라 꽃축제, 포도축제를 비롯하여 요트경기·자동차 경주·경마경기 등이 사랑을 받고 있다. 오팔과 진주가 유명하며 독특한 호주 원주민 예술로 관광객들에게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얻어내고 있다.

- **스포츠** : 호주식 축구와 럭비 리그, 크리켓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2004년엔 8개 팀으로 프로 축구 리그인 A-리그가 창설되었다. 올림픽은 1956년 멜버른 올림픽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2번 연 적이 있었다. 크리켓 월드컵 4회 우승이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 **교육** : 초등교육 6년+중등교육 총 9년간 의무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3년)·대학(3~4년) 구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호주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으며, 1961년 한국과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번영에 직결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미국의 지역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휴대폰 등 한국의 공산품이 호주로 수출되며, 반대로 철광석과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호주의 자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견 국가로서 경제개발, 기후변화, 군축·비확산 등 국제적인 사안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오스트레일리아 방문에서 채택된 『한국·오스트레일리아 범세계·안보협력 증진 공동성명』 및 부속 행동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IV

국외선진정책 발굴 현지조사(공식방문)

1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방문 1 : 웨슬리미션 노인복지센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세계 최대 규모 복지센터(알렌 워커 빌리지)

■ 떠나기 전 기초조사

● 웨슬리 미션이란?

1812년 선교사가 호주에 방문하면서 호주의 가난을 경험하고 웨슬리 미션 단체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작은 건물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호주를 대표하는 선교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감당 하는 일을 하고 있음, 200개가 넘는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 알렌 워커 빌리지는 어떤 곳일까?

알렌 워커 빌리지는 햇살 좋은 칼링포드에 위치해있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은퇴노인들을 부양해주는 은퇴촌이다. 아름답게 조성된 5에이커의 규모의 정원과 미용실, 도서관, 실내 온수 수영장과 스파, 대형 강당 및 바베큐 지역을 포함한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알렌 워커 빌리지에서는 노인분들의 스스로의 자립과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여흥거리 및 활동을 하도록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외롭거나 방치되어있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현대적인 주방과 잘 인테리어된 침실2개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친구 및 가족은 언제라도 머물고 갈 수 있다.

또한 지병이나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flexi-care" 라는 지원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시 24시간대기 직원 호출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알렌워커 빌리지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며 가족과 같이 대하고 있다.

■ 현지 답사 현황조사

- 현재 운영 중인 빌리지 형태의 3군데 중 한 곳인 알렌 워커 빌리지는 현재 215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 복지관은 198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단계 걸쳐 시설을 리뉴얼해 나가고 있다 (1985년 설립, 86가구 수용/ 1990년 수영장 설립, 40명 추가 수용/ 2000년, 24가구 확장/2013년 프리미엄 16채 독채설립/현재 5번째 리뉴얼중)
- 주 5일 미장원, 수영장, 스파, 운영하는 슈프 있으며, 클럽활동, 영화감상 가능하며 의자가 상주한다.
- 거주자격은 55세 이상으로 은퇴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거주자 평균 나이 83세, 가장 적은 나이 57세, 가장 많은나이 101세이다. 남녀 성비는 여성 75%, 남성 25%이며, 가장 길게 거주한 입주인의 거주기간은 30년이다.
- 고용인은 정규직 8명, 비정규직 20명이며, 거주자들이 따로 이사회를 두어 마을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 마을시설로는 실내 온수 수영장, 도서관, 식당, 미용실, 극장, 작업장, 컴퓨터실, 당구장이 있다.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편의점, 방문의사, 지역약국 처방약 배달, 지역 쇼핑센터 마을버스 운행, 시설 유지보수 서비스, 24시간 긴급통화 시스템, 청소관리 가사도우미 프로그램(청소, 빨래 / 식사준비 / 외부가족이 오면 돈을 지불하고 이용가능) 서비스 등이 있다.
-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실내볼링, 독서모임, 크로케, 원예반, 게임 그룹, 남자그룹, 탁구클럽, 공동TV상영, 주간 종교 예배 등이 있다.

■ 노인복지정책의 국내 사례(현재 추진 중인 우리 현황)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마을주도 공동요양사업(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 나주시 봉황면

□ 사업의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 독거와 치매노인의 증가, 늘어가는 빈집, 젊은 사람의 부재
- 농촌지역 교통 불편, 복지서비스 접근성 저하, 혹서기·혹한기 위기 대응력 저하

□ 마을 현황 및 열악한 노인복지(돌봄) 문제점

- 옥실마을 주민 49명 중 80대 이상 독거노인 5명, 건강이 취약한 80대 이상 고령자 5명,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2명은 개별적으로 요양을 하고 있지만, 혹서기·혹한기 (80일)에는 만성질환과 면역력 저하로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 사업개요

- 위 치 : 나주시 봉황면 옥실길 90 옥실마을회관(경로당)
- 사업량
 - 마을식당운영(조·식·식비 12*2식*80일, 마을조리사 1명), 마을공동요양(마을요양보호사 1명)
- 소요예산 : 6,000천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올해 6월부터 2년 간('19.6~'21년) 선도사업 실시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 노인 선도사업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

① 지역사회가 자기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자주적으로 기획

②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기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1 - 알렌 워커 빌리지 관계자 인터뷰



Q1. 알렌 워커 빌리지만의 특성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A1. 가장 자랑할 만한 특성이라면 바로 노인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복지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복지관들과 달리 이 곳은 넓은 땅과 산책로를 가지고 있어, 노인들의 활동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복지관 덕분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 안에서 24시간 어느 때라도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벨을 누르면 상주하여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플래시 케어라는 제도가 있음



노인친화적 복지관 환경은 노인복지기관의 가장 기본입니다.

Q2. 빌리지 안 집들은 개인 소유의 것인가?

A2. 이 곳 빌리지는 공동마을 형태로 운영되지만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임대 또는 전세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노후생활을 위해 이곳에 머물기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1인 호주화 50만불 정도의 예치금을 내고 독채를 분양 받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Q3. 시설물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니까?

A4. 입주한 개인이 지원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로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100% 사립재단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원이나 기부도 있습니다.



Q6.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사회복지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A6.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상담인력 등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충분한 충원과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Q7. 노인복지운영에 있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은?

A7.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과정이 너무 길어 불편이 많습니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2 - 나주시노인복지관 문현철 관장



Q1. 노인복지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A1. 가장 절실한 것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사업(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직원의 배치기준이 7명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최솟 인원인 7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려야만 보건복지부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사업(상담, 사례관리,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Q2. 나주시노인복지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노인 분들의 호응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있는가?

A2. 우리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4가지 정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며, 주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인상담 힐링프로그램과 장기요양 등급과 외자 어르신들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버스가 잘 들어오지 않거나 정류장과 거리가 먼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목욕장 송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동목욕사업, 세탁기가 없는 장애인가정, 조손가정과 어르신들에게 이불빨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동 빨래방 사업 그리고 행복마을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면서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전통차문화교실, 나주역사교실, 스토리텔링 교실, 추억역사 사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마을문화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배우시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서 더욱 참여도가 높고 또 같은 취미를 배우므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르신들끼리 더욱 빠르게 친해지시고 더욱 만족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Q3. 노인복지관 이용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A3. 노인복지관은 만60세 이상이시고 나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부중 한명이 만60세이시면 배우자가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없고, 식사비는 일반 1,5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분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Q4.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나주시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지원이 필요하고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A4. 당장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분리 교부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경상보조금에 사무비와 사업비가 함께 교부됨으로 인해 매년 인건비가 인상되고 사업비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비 예산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함으로써 인건비가 안정되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질 좋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이 중요합니다.

■ 보다는은 나주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담론

● 김정숙 의원

- 복지의 개념에서 보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호주의 사례로 나주시 노인복지사업도 맞춤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사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복지혜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이다.

● 윤정근 부의장

- 우리에게 노인복지에서 저층민에 대한 인식은 어느 궤도까지 올라왔으나 중산층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아마 체면이란 문제로 부각이 되지 않았을 거 같다. 일단 이곳은 마을을 이루는 구조로 노인의 사회성이 증가하고 노인복지에 가장 필요한 간호사, 의사를 채용하여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문화 시설들을 갖춰 놓아 삶의 질이 상승할 것 같다. 비용은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중산층 노인복지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 마을 안 수영장, 소규모 극장 등을 보며 행복한 복지, 받는 복지보다 누릴 수 있다는 복지의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이제남 의원

- 선진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중요한 건 아동복지든 노인복지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므로 앞서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개발에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시에는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정책 수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 강영록 위원장

-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는 정서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공경의 마음이 가지고 있고 늙어서는 자식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부모세대의 생각이 있다 보니 적절한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또한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와 노후대책에 관해 사전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교육사업도 필요.

● 박소준 의원

- 국내사례, 우리 나주시 봉황면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 김철민 의원

- 서양은 종교를 기반으로 사회복지가 출발하였다. 그래서 시설운영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를 개인 대 개인인 자원봉사의 제도만을 가져왔다. 이번 알렌워커빌리지 방문을 통해 복지를 소극적인 개념이 아닌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누린다는 인식) 타운십, 펠로십을 갖게 하는 인식의 전환의 접근과 복지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는 정성적 측면의 접근, 이렇게 복지프로그램의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지”는 정책이나 사업에 앞서
“사람”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복지의 수혜자도, 추진하는 것도 사람이다.

더 많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2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방문 2 : 포스트테판 와이너리(와인농장)

농촌6차 산업분야의 선진지 방문견학

■ 떠나기 전 기초조사

● 세계적인 와인 강국, 호주

호주는 세계 와인 생산량 10대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1인당 와인 소비량으로 보아도 세계 2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와인을 생산한지 약 200년 남짓이니,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구세계 와인에 비해 짧은 역사, 20세기 중반까지는 와인에다 높은 알코올 도수 증류주를 섞은 알코올 강화 와인이나 대량으로 생산하여 값싸게 만든 테이블 와인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 고급 와인을 만들고자 품질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설비를 정비하고 과학적인 관리법, 신선한 양조기술을 도입했죠. 기존 포도 품종을 호주에 맞게 재배하고 그 특성에 맞는 와인을 빚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남아메리카의 칠레 등과 신세계 와인 생산국 기수로 떠올랐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기후에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와인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우수하면서 안정적인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여 활발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죠.

● 호주 와인의 대분류

프랑스 보르도 등지는 지역에 따라 품질 등급 매기는 법이 제각각이라 어렵죠. 호주는 간단합니다. Genetic wine, Varietal wine, Varietal blend wine로 나뉩니다. 일반 대량 소비용 저가 와인인 테이블 와인을 Genetic wine이라 합니다. 품종, 생산년도인 빈티지, 생산 지역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포도의 생산지 등 상관없이 섞어서 만든 내수용 대중 와인이죠. Varietal wine은 수출을 겨냥해 만든 보다 좋은 급의 와인입니다. Varietal blend wine도 좋은 품질의 와인으로, 둘 이상의 포도를 섞어 만들어요.

● 호주 와인 라벨의 의미

와인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라벨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아닌 비교적 친숙한 영어에 신선한 디자인, 어떤 품종으로 언제 만든 와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세계 와인 라벨의 특징이죠. 호주의 와인 라벨에서 중요한 기준은 85%입니다. 생산한 연도 기재 시 동일 해에 재배한 포도가 85% 이상일 때 빈티지를 표기해요. 품종 역시 메를로, 쉬라즈 등 단일 포도 품종이 85% 이상일 때 포도 품종을 기재합니다. 두 품종을 더해 85% 이상 사용했을 때, 많이 사용한 품종을 우선하여 기재합니다. 생산 지역 표시는 일반 블렌딩 와인은 5대 생산지만 표시합니다. 아주 작은 지역까지 표시되어 있으면(단일 포도밭) 주로 고품질 와인이죠. 이때 프랑스 AOC처럼 보르도니 그라브니 하는 생산 지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포도 재배 지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GIS(지역 표시시스템)에 따라 기재를 하지요. 경기도 서울 마포구처럼 South Australia>~Hills> 제적 재배지역 순으로 기재합니다. 호주는 1978년 포도 원산지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아주 중요히 여기지 않는 편이죠. 와인을 숙성 할 때는 스테인리스통, 오크통, 때로는 콘트리트로 만든 탱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통에서 와인을 숙성했는지에 따라 와인의 풍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굴과 먹는 프랑스 샤블리의 경우 스테인리스통 숙성 와인이 좋죠. 라벨에 숙성 방식을 표기하는데, 스테인리스 양조는 unwooded, 오크통 숙성은 oak aging을 기재합니다.

● 호주 와인에 붙은 암호 같은 숫자는?

호주 와인에 Bin 555, Bin 888 등 숫자가 기재된 와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 아닌 숫자 덕분에 와인의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장 탱크번호라는 설도 있고 문맹인들이 읽기 쉽게 숫자를 썼다는 설도 있어요. 현재 호주의 유명 와이너리들은 bin number, reserve bin 등 특색 있는 상품의 와인을 별도로 번호화 하여 와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 호주의 대표 품종, 쉬라즈

호주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기후는 지중해식 기후, 적은 강우량이 특징입니다. 페루아, 특히 토양은 물이 잘 빠지는 자갈, 충적토가 특징입니다. 프랑스 샤블리의 샤흐도네, 프랑스 보졸레의 가메, 독일 모젤의 리슬링, 아르헨티나의 말벡 등 각 지역에서 손꼽히는 포도 품종들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현재 거의 모든 유럽 종의 포도가 길러지고 있어요. 그 중에도 레드와인을 만드는 쉬라즈와 화이트 와인의 세미용이 유명하지요. 쉬라즈는 남부 호주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목직한 바디를 뽐내는 포도는 더운 지역세 주로 잘 자랍니다. 황무지를 연상시킬만큼 덥고 건조한 호주에서 쉬라가 잘 적응했어요. 프랑스의 쉬라에 비해 스파이시하고 자극적이며 강한 풍미를 가졌어요. 쉬라는 이탈리아의 Barolo, 프랑스 Rhone 등에 이어 무거운 와인입니다. 질감이 풍부하고 감미로우면서 독특한 향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죠. 또한 후추 향이 나고 타닌이 많아 진하면서도 산도도 충분하지요. 보통 실내 온도인, 18도 내외의 실온에서 마시면 좋습니다. 호주에서는 고정관념을 깬 신선한 블렌딩 와인도 많아요. 쉬라즈와 까벨나, 세미용과 샤흐도네의 조합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후추 향이 나고 타닌이 많아 진하면서도 산도도 충분하지요. 보통 실내 온도인, 18도 내외의 실온에서 마시면 좋습니다. 호주에서는 고정관념을 깬 신선한 블렌딩 와인도 많아요. 쉬라즈와 까벨나, 세미용과 샤흐도네의 조합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호주의 주요 와인 산지

호주 야라밸리의 드립은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인근에는 장미가 심어져 있죠? 장미는 병충해에 약해 포도나무에 닥칠 병충해를 미리 알려 대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유럽 이민자가 시작한 와인 재배는 시드니를 시작으로 멜버른, 애들레이드 등으로 퍼졌죠, 유럽 포도나무를 고사 시킨 필록세라의 습격에서 호주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포도 재배지가 황폐화 되고 나서는 남호주가 와인생산 중심지가 되었죠. 뉴사우스웨일즈 헌터밸리 Hunter valley, 시드니는 이주 초기부터 와인을 생산했어요. 세미용, 쉬라즈 등을 많이 재배하며 화이트 와인의 생산이 활발합니다. 빅토리아주에는 야리 밸리 Yarra vally, 멜버른, 구나와라, 타스마니아가 손꼽히며 프랑스 브르도풍의 발포성 와인을 많이 생산합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바로사 밸리 barossa Vally 등이 주 생산지로 호주 와인의 50%이상을 생산하며 보르도풍의 레드와 디저트 와인을 많이 생산해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퍼스 등지에서 포도 재배가 이뤄지고 있어요. 특히 스완 밸리에서는 좋은 품질의 레드,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남동부 호주 쪽에서도 블랙스완 같은 와인이 만들어 지고 있지요.

● 호주의 주요 와인너리

호주는 현재 1000여개가 넘는 와인너리가 활발히 와인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칠레나 호주 같은 신세계 와인 강국에선 대규모 자금을 가진 대기업들 몇 개가 시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와인너리(와인 생산자)로는 하디스, 펜폴드, 린더만, 로즈마운틴, 빈야드 등이 있습니다. Southcrop, BRL Hardy, Orlando, Beringer Balss 등 회사가 호주 와인 생산량의 80%이상의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와인너리인 펜폴드는 호주 와인의 인식을 바꾸었죠. 싸고 저렴한 와인 생산국에서 고급 와인을 생산코자 했던 노력의 첫 결실이었습니다. 1951년 펜폴드 penfolds사는 호주 최초 프리미엄 와인, 그레이니지 에르미타주 grange hermitage를 생산했습니다. Grange hermitage 1995는 와인스펙테이터 선정 20세기 와인 베스트 12에 올랐습니다.

■ 현지 답사 현황조사

● 포트스테판 와인너리

와인 애호가들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와인너리 투어가 마련되어 있다. 이 와인너리에서만 제공하는 와인을 포함한 20여 가지 현지와 지역생산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너리로 7가지 다른 종의 포도를 생산하는 와인너리이며, 넓은 뜰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 곳 와인너리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는데 드는 유통비용 및 부수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장소 마케팅을 이용한 와인투어 소득까지 더해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점에서 6차 산업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 포스트테판 와이너리, 농업6차 산업 선진지 현장에서 묻고 답하다

Q1.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A1. 페이스북, 홈페이지, 신문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Q2. 지방정부의 보조가 있는가요?

A2. 변호사, 의사들이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의미가 없다.

Q3. 호주와인만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3.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포도가 햇볕을 고루 잘 받아 맛이 없는 게 없고 평균이상의 맛을 낸다.

■ 선진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로 나주를 바꾼다면 - 우리의 생각

● 임채수 의원

- 나주에도 예전 농협에서 추진한 배로와인 있었음, 배로 와인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 와인은 좋았지만 배의 판매처 확보와 홍보마케팅 전략이 부족했었다.



● 김철민 의원

- 한 장소에서 보고, 냄새도 맡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압축현장을 보았다. 우리시 로컬푸드 매장에 먹거리 매장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강영록 위원장

- 이번에 방문한 와이너리는 소농의 구조라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대농구조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안되니 취업을 하려고한다. 와이너리 정도의 농업과 같이 가는 관광구조가 보장된다면 우리 농업도 활성화 되고 좋을 거 같다.

● 이상만 의원

- 4종류 와인, 포도맛을 볼 수 있어 좋았으나 취미로 포도를 재배한다는 방문지의 와이너리 풍토는 우리에게 접목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결성있는 6차 산업의 모습을 못봐서 아쉬움은 있지만 한곳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할수 있게 만들어 냈다는 점은 좋았다.



● 박소준 의원

- 농업 6차 산업 분야 선진지이지만, 취미나 부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모습이 대농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 농업 실정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배박물관 활성화 및 배 특화상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주 농산물을 이용한 6차산업을 개발하자면
먼저 배의 판매처 확보와 홍보 마케팅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 시작과 끝, 소비자와 생산자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나주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 방안 정책을 수립해보자!

3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방문 3 : 블랙타운시티 시의회

해외 지방의회 비교 방문견학

떠나기 전 기초조사

블랙타운시티는 어떤 곳일까?



광역시드니의 서부에 위치해 있고, 인구수가 30만이 넘는 NSW주 최대 도시이다. 북쪽과 북동쪽은 호스베리 시티 및 더 힐스 사이어 지역과 접하고 동쪽은 파라마타 시티로 이어진다. 남쪽에 홀로이드 시티와 페어필드 시티가 있고 서쪽은 펜리스 시티가 위치해 있다. 블랙타운 시티의 땅 면

적은 총 2만 4019헥타르(240km²)로서 주거지가 고르게 분포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원농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상업 중심지는 블랙타운과 마운트드루이트이다. 지역 내에 전문대학, 웨스턴시드니대학 블랙타운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지역 명소로는 시드니 서부 중심부에 위치한 웨스턴시드니 파크랜드가 있다.

현지방문 현황조사

블랙타운시는 대구 수성구와 1994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이후로 6번 한국을 방문 했으며 최근 4주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아래 두 번째로 큰 행정도시이며, 인구는 앞으로 50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 주에서 인구 1위로 제일 큰 행정도시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의 행정이 주와 크게 다른 점은 한국의 시장역할을 호주에서는 의장이 하며, 실제 행정업무는 전문경영인을 두어 업무를 본다. 블랙시티 시의원은 14명의 시의원과 시장의 역할을 하는 의장으로 구성되며 모두 선출직으로 4년의 임기제로 구성된다. 은퇴를 하거나 두 번째 직업으로 시의원을 선택하였으며, 연봉도 없으며 소정의 활동비만을 가지고 한다. 물론 시장은 하루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의회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블랙타운시티 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Q1. 김영덕 위원장 : 전문경영인 채용자격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또 근무기간이 궁금합니다.

A1. 정해진 기준이나 편견이 없다. 보통의 직원을 채용하듯 의회 공고를 통해 서류심사후 면접을 본다. 결정권은 사기업의 이사회처럼 시의원과 시장에게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전문경영인의 근무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Q2. 이상만 의원 : 시장 선출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A2. 4년마다 의원 15명을 뽑는 선거를 하는 직접선거이며, 그 중 한명은 시장을 겸직하게 된다. 당 구성은 노동당, 자유당, 무소속이 있다.

Q3. 박소준 의원 : 시의원 출마 제한 규정이 있나요?

A3. 조건은 없다. 18세 이상이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Q4. 이재남 의원 : 집행부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A4. 전문경영인에게 있다.

Q5. 윤정근 부의장 : 전문경영인 재신임 제도가 있는지? 또 해촉사유는 무엇인지?

A5. 1년마다 평가를 하며 계약은 5년마다 한다. 아직까지 해임시킨적은 없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해임대상으로 거론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시장과 전문경영인의 면담을 거치고 해임보다는 임시 회의를 통해서 해임보다는 권고 사직으로 방향을 잡고 결정을 내릴 것 같다.

Q6. 강영록 위원장 : 법정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가요?

A6. 지방의원선거에는 국가에서 비용보장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대준다.

Q7. 김정숙 의원 : 여성의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성을 의원 선출시키는 제도가 있는지? 의원들 지역구가 있는지?

A7. 남성 11, 여성 4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비하면 높은 여성 구성 비율이다. 여성의원을 선출시키기 위한 특별한 제도는 없다. 당안에서의 공천비율을 통한 노력은 있으며, 블랙타운시티에서 최초로 여성 부시장이 나온 이력은 있다. 지역구는 없으며, 매년 선거가 끝나고 인구에 따라서 지역이 개편된다.



Q8. 임채수 의원 :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8. 의원과 공무원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다. 의원이 안건으로 시장한테 건의하면 시장이 전문경영인과 회의를 하고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방식으로 집행부 관리를 하고 있다. 7. 1. ~ 1. 30. 동안 전문경영인이 관련팀과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의원과 예산회의를 하는 한국과 비슷한 견제방식을 가지고 있다.



Q9. 김철민 의원 : 인구가 증가 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또 의회의 당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A9. 도시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교통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으며, 별관에 새로운 집들을 새로 짓고 있다, 블랙타운 시 의회는 주정부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유는 시 의회는 노동당 10명, 자유당 5명으로 구성으로 노동당 소속 의원은 수가 많으나 주정부 의회는 자유당 위원들이 더 많은 좌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Q10. 담당자 :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지? 보좌관 제도가 있는지? 의회의 직원은 몇 명이 되는지?

A10. 의원역량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며, 의원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보좌관제도도 없으며, 의원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퇴근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 소속 직원이라기보다는 블랙타운 시의 직원이 외근직을 제외하고 약 50명 정도 된다.

블랙타운시티 의회(국외 의회)을 방문 견학을 통해 제8대 나주시의회 선진화 방향을 비교연구 해보다

김정숙 의원

- 지역구에 편협하게 몰입하지 않고 전 시민을 위한 다는 점이 보기 좋았다.

윤정근 부의장

- 신분상승 및 직장경험의 일환이 아닌 소득이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사명감 있는 의원의 입문을 위하여 의원 급여를 낮추거나 무급여 수당정도를 제공하고, 공천제를 없애는 방법 등을 통해서 등용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도시가 팽창하고 있으므로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채용하였다. 우리도 부단체장의 전문경영인 도입 및 채용방향은 어떤가 싶다.

임채수 의원

- 나주시의원들과 하는 역할은 비슷했던 거 같다. 이곳의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분야의 일을 하다 오신분들이라 분야별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거 같고, 의원들의 업적을 더 들여다 보기에 시간이 짧았던 거 같다.

박소준 의원

- 실제 의원님과의 만남이 없어 아쉬웠음, 전문경영인제도는 우리 상황이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패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김철민 의원

- 사람 선정에 공동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과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에는 절차적 시간이 걸리지만 그에 반해 소수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고 위험요소가 적으며 결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방문 4 : 호주 과일도매시장

농산물 유통시스템 현황 조사 및 견학 / 전통시장 비교 견학

떠나기 전 기초조사

일반 현황 조사

시드니 마켓은 1810년 건립된 42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시드니 최대의 농산물 거래 시장임.

37개의 과일 및 야채 도매상이 있고, 400개의 과일 및 야채 생산자 그리고 180개 이상의 및 소매상을 겸업해서 직접 소비자 한테도 판매 하며, 과일, 야채 그리고 꽃의 주 공급 시장은 뉴사우스웨일스주 와 캔버라임.

시드니 마켓은 일명 플래밍턴 마켓이라고 불리우며 플래밍턴 이름은 마켓이 위치한 지역 이름이 플래밍턴에서 생긴 이름임.



이곳이 처음 생긴 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중간 업자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준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구입 하려고 시드니 각 지역 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주말에 찾고 있음.

직거래를 통해 7~8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크게 줄일 수 있어 생산 농업인은 소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Win-Win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다른 시선! 뜻밖의 발견! - 도시마켓 분야

● ‘지키기 위한 변화’ 전통시장을 디자인하다. - 호주 선진 사례



#1 더 록스 마켓(THE ROCKS MARKETS)

시드니 3대 마켓 중 하나로 유서깊은 록스(The Rocks) 지역에서 주말마다 열린다. 빈티지 의상과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유기농 수제 잼 등을 시민들이 직접 판매하며 호주 전통 공예품인 부메랑과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Didgeridoo)도 볼 수 있다.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더 록스(The Rocks)의 자갈 깔린 골목길에 들어서면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호주산 선물과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마켓이 나온다. 호주의 야생동물을 그려 넣은 예술 작품, 친환경 아기 옷, 나뭇잎을 금에 담가 만든 독특한 주얼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더 록스 마켓은 서큘러 키(Circular Quay)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2 글리브 마켓(GLEBE MARKETS)

시드니의 외곽에 위치한 Glebe의 주말 시장으로 나무로 둘러싸인 공터에서 열린다. 각종 골동품과 음반, 의류, 가죽제품, 책 등을 판매하며 현지인들이 직접 만든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와 천연 비누 등의 제품도 있다. 희귀하거나 소장가치 높은 물건을 구하고 싶다면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다. 도시 중심가 가장자리에 글레브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는데, 많은 예술가, 학생, 창업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마켓에서 그러한 특색과 다양성이 잘 드러난다. 중고 의류, 핸드메이드 주얼리, 가정용 소품등 지역주민이 직접나와 판매한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터키식 피데부터 채식 컵케익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현지 음악가들이 마켓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잔디 위에서 공연도 펼쳐진다. 글레브 마켓은 센트럴 역(Central Station)에서 잠깐 걸어도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

■ 현지 답사 현황조사

식당 상인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력상품으로 과일시장을 열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22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주말 내내 장이 선다.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상인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시장 안에 판매구역을 임대하여 운영 중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중 가격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격경쟁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를 고집하고 있어 가능!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면 복잡하고 다단계 비슷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차이를 중간 구조에서 차지하는 것과는 비교 됨.

결국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의 관건은 직접 유통하는 방법

➡ 나주시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3 패딩톤 마켓(PADDINGTON MARKETS)

시드니를 대표하는 노천 시장 중 하나이다. 독특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품과 예술가들의 작품이 다른 시장보다 많은 편이다. 시장의 한 쪽에는 넓은 노천 레스토랑이 함께 펼쳐진다. 호주 최고의 패션 브랜드 짐머만(Zimmermann)의 탄생지인 패딩톤 마켓은 150개 이상의 매대에서 신인 **디자이너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주얼리, 가정용 소품, 아트, 패션 등, 패딩톤 마켓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구경해볼 수 있다. 각국의 음식을 파는 야외 푸드코트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이다. 현지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한 특별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패딩톤 마켓은 도시 중심가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4 시선으로 담아낸 생각

■ 고정관념의 탈피 : “시장은 물건은 판매하는 곳이다?”

물건의 상거래장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곳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우리 나주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 예술가, 청년, 학생 다양한 계층의 생각과 참여를 이끌어 내보자

실제 호주 시드니에서 유명한 3대 마켓은 마켓을 형성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계층이 다양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 예술가들의 작품, 시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상품, 청년과 학생들의 길거리 머스킹 공연까지... 시장이 곧 난장이며, 모든 문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라는 우리 전통시장의 특성이 현대화되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는 생각한다.

“ 지키기 위한 변화 — 전통에 젊음을 디자인 하자 ”

● ‘지키기 위한 변화’ 전통시장을 디자인하다. — 국내 선진 사례



#1 전주 남부시장

전주 남부시장은 전주성 사대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남문인 풍남문 밖에서 서는 장터이다. 호남 최대의 물류집산지로 불린 적도 있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가 ‘청년물’과 ‘야시장’등으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남부시장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청년물’은 2011년 ‘문전성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2013년 사업 종료 후 지금까지 외부의 지원없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이 서로의 상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곳이다.



#2 광주 1913 송정역시장

1913송정역시장은 2015년 광주송정역의 호남고속철(KTX) 개통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낡고 오래된 재래시장이었던 송정역전매일시장을 개보수하고 청년 상인들을 지원하며 재탄생한 1913송정역시장은 2016년 개장해 새로운 광주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1913은 송정역전매일시장이 생긴 연도를 뜻한다. 송정역전매일시장은 과거에 머무른채 쇠퇴하고 있었다. 3년 전 이곳은 이른바 지키기 위한 변화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다. 1913송정역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현대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시장을 재개발할 때 기존 점포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되, 시장의 매력인 예스러움을 최대한 보존했다.

#3 언론보도 - 전주 남부시장, 광주 1913 송정역시장



● ‘지키기 위한 변화’ 전통시장을 디자인하다. - 나주목사고을시장을 위한 제안

#1 나주목사고을시장 현황

□ 일반현황

시장구분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개인시장() 법인시장()	공설시장(√) 공동개설시장()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14	
개설일자	2012. 1. 4.	건축일자 2011. 11. 14.
건물구조	철골구조(집성목 마감)	점포수 167동 (상설54, 5일113개)
대지면적(㎡)	27,254	건물면적(㎡) 7,283
매장면적(㎡)	4,703.69	부대시설 야외 공연장, 주차장 등
취급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7,283		7,283		7,283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용 종사자	기타
167		167			253	41	74	138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전문시장(소매중심 - 일부 도매)
주요품목	농산물(채소, 잡곡), 수산물(홍어), 가공식품(식료품-반찬)
상권의 특성	광역권 중심
경쟁점포 현황	롯데마트 나주점(2.8km), 축협 하나로마트(0.5km), 농협 하나로마트(1.2km)
시장이용 가능 인구	30만명(광주광역시, 영암군, 함평군 등)
교통현황	국도1호선, 국도13호선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평균(3년) 3,660백만원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4일, 9일) : 2,000여명, 상설 : 300여명
판매촉진 행사	할인·경품행사 12회(월1회), TV방송홍보 8회(전국노래자랑, 6시내고향, KTV 장날다큐 등)

#2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광역시	민간 기초	
2013		5일시장동 우수 시설 증설 공사	10,220			10,220	완료
2013		전기시설 보수 공사	7,000			7,000	완료
2013		시장 앞 녹색쌈지공원 조성	20,630			20,630	완료
2013~2014		5일시장동 비·해 가림시설 보수공사	87,801			87,801	완료
2014~2015		공설마트동 외부 집성목보호제 도포	6,510			6,510	완료
2017		노점상 비가림시설 설치	931,000			931,000	완료
2018	시장활성화	시장바우처사업	30,000	30,000	-	0	추진중
2018	시설현대화	태양광주차장설치 등	930,000	557,000	-	37,300	추진중
합 계			2,023,161			1,100,461	

□ 위 치 도



□ 시장 전경



#3 발상의 전환으로 통한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전통시장 + 청년창업몰

나주목사고을 전통시장을 확장하여 현재 나주시에서 추진 중인 상리단
청년창업몰사업을 나주목사고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결 및 전통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고려되어야 할 사항

- 기존 상인회와 청년상인들과의 관계 정립 및 협조
- 청년 창업컨설팅 및 창업 이후 가게 경영 방향 등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창업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 청년상인 간 활발한 교류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 필요
-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이목을 끄는 색다른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
청년시장은 관광객과 지역민이 자주 방문 하는 문화시장이 돼야 지속가능하며,
기존의 전통 시장에 현대적인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 지키기 위한 변화 — 전통에 젊음을 디자인 하자 ”

1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활용화 우수사례 견학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포트스테판 사막

■ 떠나기 전 기초조사 1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국립공원이다.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81km,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의 블루마운틴스에 있다. 공원 면적은 267,954 헥타르이다. 마운틴 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 지역은 고원 지대로 강이 몇 개 흐르고있다. 최고 지점은 웨롱 산 (해발 1,215m)이며, 최저 지점은 네핀 강 (20m)이다. 스리시스터스를 비롯해 협곡 경관으로 유명하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휘발되는 오일이 태양 빛에 반사되어 푸르게 희미하게 보여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59년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이 개원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그레이트 블루마운틴 지역의 일 부분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 떠나기 전 기초조사 2 - 포트스테판 사막

시드니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다와 사막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신비의 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한 모래썰매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 매우 인기가 높은 장소이다.



■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 비교견학, 그리고 우리의 생각

● 김철민 의원

- 자연을 자원화 하지 않고 보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호주인들의 생각이 보이는 방문지였다. 개발된 곳과 개발되지 않은 곳, 그 자연 자체 보존에 대한 관광이 입소문을 타 더 높은 가치를 부여 받는 모습을 보았다.



● 이재남 의원

- 나주는 자연환경과 어울려진 관광상품이 떠오르는 게 없다. 충분한 자원이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상징적인 관광자원을 발한다면 부산물로 그 주변의 관광상품도 살아날 것이다.



2 도시경관 조성 선진사례 비교견학

- 하버브릿지, 오페라하우스, 로얄 보타닉 가든, 하이드파크, 세인트메리대성당

하버브릿지



시드니 하버 브리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다리이다. 시드니 도심에 위치한 철제 아치교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이다. 시드니 중심상업지구와 북쪽해변 사이의 시드니항을 가로질러 철도,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담당하는 주 교량이며, 인접해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아치교 특유의 디자인으로 인해 시드니 지역 사람들에게는 "옷걸이(The Coat Hanger)"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1923년 7월 28일 착공을 시작하여 8년이 넘는 공사 기간 끝에 1930년 10월에 아치 구조물이 완공되었으며 1932년 1월 19일 최종 완공 이후 1932년 3월 19일에 개통되었다. 그때 당시 시드니에 등록된 차량은 1,000대 밖에 없었지만 300년을 앞서 내다 보고 10차선으로 완공하여만들었다. 여기에는 6,400여개의 나사와 79%의 영국에서 가져온 철강이 쓰였다. 1988년 건설에 투입된 모든 빔을 청산하였지만 다리의 유지 보수와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만든 해저 터널(하버 터널 - 1992년 완공)의 공사, 유지 비용 충당을 위해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8년이 넘는 건설 기간 동안 해마다 1,5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열여섯 명이 건설 도중 목숨을 잃었지만 노동자 계층을 대공황으로부터 구제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도로가 부족하지만 다리경관을 훼손하여 짓는 일반다리보다는 비용은 더 들지만 해저터널을 만들어 사용하자는 게 호주인들의 생각이다.

오페라 하우스



1973년 10월 20일에 문을 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영어: Sydney Opera House)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공연장이다. 1547석의 오페라 극장과 2679석의 음악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극장, 전시관, 도서관 등이 있다. 이곳은 가장 유명하고 인상적인 20세기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 중 하나이다. 공원 지역과 함께 시드니 하버 브리지, 베넬롱 포인트가 있다.

남쪽으로는 시드니의 유명한 다리인 시드니 하버 브리지와 가까우며 시드니 하버 브리지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주변의 풍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이다. 조개 껍질처럼 생긴 이 건물의 지붕 모양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의 우승작 작가인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론 우촌이 오렌지 껍질을 벗기던 도중에 떠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분적으로 원형의 모양인 바깥 표면은 자주 그 곳을 향해하는 범선의 소함대를 떠올리게 한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비록 많은 관광객이 공연 관람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드니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발레와 음악 공연, 오페라가 열리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극단, 시드니 극장단, 시드니 교향 관현악단의 상주지이며 뉴사우스웨일스주 문화부 장관 산하 기구인 오페라 하우스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선정되었다.



<오페라 하우스 내부 견학사진>

로얄보타닉 가든

시드니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s, Sydney)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한 식물원으로 마운트 아난 식물원, 마운트 토마 식물원과 함께 시드니 내에 위치한 대중에게 개방된 식물원 중, 3대 메이저 식물원이다. 이 공원은 도메인 공원과 인접하여 있어 함께 관리되며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자유로이 개방되어 있다.

세인트메리 성당

세인트 메리 대성당(St. Mary's Cathedral)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로마 가톨릭 대성당으로, 시드니 대교구 대성당이다. 시드니 하이드 파크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하이드 파크와의 사이에 칼리지 스트리트 (College Street)라 불리는 큰길이 나 있다.

하이드 파크



시드니 하이드 파크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 동부에 위치한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이다.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와 칼리지 스트리트, 세인트 제임스 로드, 프린스 알버트 로드, 리버풀 스트리트의 남단을 끼고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되었다.

공원 주변으로 남쪽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하이드 파크 배럭, 시드니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세인트 메리 대성당,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이 남쪽으로는 다우닝 센터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데이비드 존스 백화점과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시드니 하이드 파크는 본래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식민시대 초기, 이곳은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이 곳에서 열렸다. 1810년 10월 13일 맥쿼리 총독에 의해 북쪽의 도메인 지역을 분리시키고 하이드 파크라 이름지었으며 주민의 여가와 운동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한 후 도메인 지역은 총독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당시 하이드 파크에서는 크리켓, 럭비, 경마, 고리 던지기, 아일랜드식 필드하키의 일종인 헐링 경기가 열렸으며 군사 훈련장으로도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길 잃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가축들도 이 곳에 모여들었다. 식민 초기 최초의 크리켓 경기장과 경마장이 위치하였고 크리켓, 경기와 아일랜드식 하키 경기를 치르며 공원의 많은 부분이 손상을 입었다.

도시경관 조성 선진현장의 목소리로 나주를 바꾼다면 – 우리의 생각



● 김정숙 의원

- 시드니 시내투어(오페라 하우스 등) : 굴뚝없는 산업, 관광수입이 가치가 크다. 우리가 바나나보트를 영산강에 운영하는 모습은 어떨까
- 시드니 시내투어(하이드 파크, 하버브릿지 등) : 예전부터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함,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 그 사이에 건물을 배치하는 것을 보면 통 제안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떤 고민부터 시작 해야할까



● 이재남 의원

- 시드니 시내투어(하이드 파크 등) : 숲속에 집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시계획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잠깐의 불편함은 감내하며, 난개발이 아닌 후세에도 연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 박소준 의원

- 시드니 시내투어(하이드 파크, 하버브릿지 등) : 도시를 계획할 때 숲부터 지정하고 집을 배치하는 방식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좋았으며, 주차요금 사용료 계산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맡기는 모습에서 호주의 국민 준법정신을 높이 살만했다. 또 하나 호주는 상수도 물을 식수로 마시고 있었다. 한국은 8년마다 상수도 수도관 검사를 하는데 그때 침을 넣어서 관리를 한다면 수질검사 및 물소비량 예측 등 다방면에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



■ 다른 시선! 뜻밖의 발견! - 도시디자인 분야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도시이미지를 디자인하다. - **국외 선진 사례**



#1 호주 시드니 센테니얼파크 공중화장실

주변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게 건축되어 매우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이 손을 씻을 때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되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1위로 꼽히기도 했다.



#2 일본 효고현 중력 배양 공중화장실

이 화장실은 테니스 코트의 티켓 부스와 화장실 파빌리온의 독특한 소재로 설계되었다. 강철 지붕과 기둥이 별도로 서있는 형태로 벽돌로 만들어진 타원형 링 모양이다.



#3 뉴질랜드 웰링턴 쿠모 토토 공중화장실

기묘한 외관으로 시선을 끌어들이지만, 시설 자체도 실용적으로 설계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프라이버시와 위생을 고려하여 상징적이며 시각적이게 설계되었다.



#4 노르웨이 로프텐 길가 휴게소 공중화장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 관광 루트에 위치해있다. 이전 화장실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견고하고 내구성을 강조해 설계되었다.



#5 미국 텍사스 트레일러 공중화장실

오스틴의 콜로라도 강 유역에 위치한 이 화장실은 조각품 형태로 제작되었다. 가볍고 신선한 공기가 침투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6 영국 런던 mble 블리 공중화장실

런던 북부 새로 조정된 포장도로 중앙에 서있는 화장실이다. 반짝이는 금속 스크린으로 사람들이 내부를 보지 않고도 빛과 신선한 공기가 침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7 스위스 Uster city 공중화장실

몇 년 동안 Uster city에 설치 될 공중화장실의 원형으로 개발되었다. 벽에 다양한 반사 각도를 형성하는 알루미늄 스트립으로 태양의 위치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반짝이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8 호주 히로시마 공원 공중화장실

종이 접기 크레인을 닮도록 설계된 이 화려한 화장실은 공원 내의 17개의 화장실의 3개의 다른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 건물은 원형 창문이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9 중국 저장성 진화건축공원 공중화장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Ai Weiweirk 디자인 한이 콘크리트 화장실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10 폴란드 그단스크 공중화장실

실용적이고 세련되게 설계되었다. 거대한 빗방울 모양으로 수직 강철 리브로 건물이 둘러싸여 있다.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도시이미지를 디자인하다. - **국내 선진 사례**



#1 서울시청역 공중화장실

지하철역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깔끔한 느낌의 화장실 분위기도 좋지만 벽에 걸려있는 많은 그림들이 화장실이 아닌 갤러리 느낌의 격조 높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2 강원도 춘천 휴게소 공중화장실

춘천 고속도로에 위치해 있는 이 공중 화장실은 미술작품부터, 조각작품까지 전시되어 있어 마치 화장실이 아닌 쇼룸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3 강원도 고성 테마 공중화장실

강원도 고성팔경중 하나인 청간정에 위치한 이 공중화장실은 한옥의 미를 살려 디자인하여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고성팔경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특색 있는 테마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다.

#4 부산 광안리 공중화장실

일명 소라 화장실이라 불리는 이 공중화장실은 내부가 원형으로 되어있으며 색감 있는 타일로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해우욕장 주변의 화장실답게 발 씻는 곳과 모래 터는 곳이 마련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도시이미지를 디자인하다. - **나주 실태**



#1 목사고을시장 공중화장실

시장 한쪽 구석에 위치한 이 **공중 화장실은 위치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 입구부터 **시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위생적으로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내부는 깨끗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이라는 특색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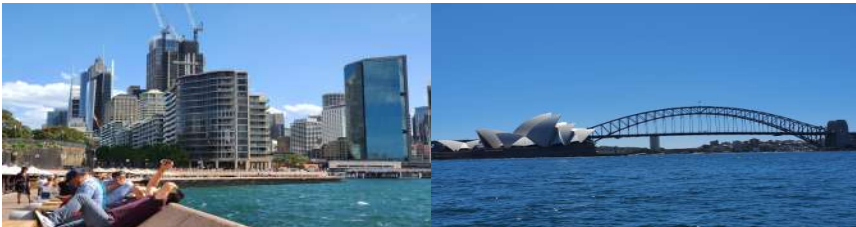
#2 완사천공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 미비! 또 화장실 입구에는 시장처럼 여러 공사용 자재들은 없었지만 붙어있던 스티커나 포스터들이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색이 퇴색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역시 화장실 실내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있었지만 아무런 특색 없는 일반 화장실로 참신한 디자인을 통해 더욱 깨끗해 보이고 참신한 디자인의 화장실로 변화할 필요성을 느꼈음.



● 경제분야 자료조사 정리

- 호주는 인건비가 비싼나라이다.
- 마트에서 가격홍정이 안되는 나라이다.
- 호주는 양산업이라고 하여, 양털은 이불이나 가방, 내장은 화장품, 뼈는 찻잔의 재료로 들어간다.
- 일본자동차가 제일 많고, 도요타 공장이 유일하게 호주에 있다가 문을 닫았고 작년부터 한국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였다.
- 젊은사람들은 노동력을 재산으로 생각해서 집을 산다. 전세는 없는 나라이며, 호주 국민이 처음 취득하는 집은 취득세가 없으며, 취득세는 4프로이다. 은행에서는 예치금을 싸게 받고 빌려주고, 35년 상환기간을 잡고 대출을 해준다.
- 호주는 조용함을 원하는 나라로 우리와 다르게 막다른 길목의 집값이 비쌌
- 자격증의 나라이며 취득 및 갱신 할 때의 돈은 모두 나라에서 가져간다.
- 일년간 삼성이 버는 돈이 시드니의 테마건물을 보러오는 관광산업의 수입원과 맞먹음.
- 국가수입원 순서는 광산업, 금융업, 관광업, 세금, 벌금 임.
- 지폐특화산업(4차산업)은 안찢어지는 플라스틱 화폐로 태국, 뉴질랜드,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다.
- 한국의 설탕 수입은 거의 호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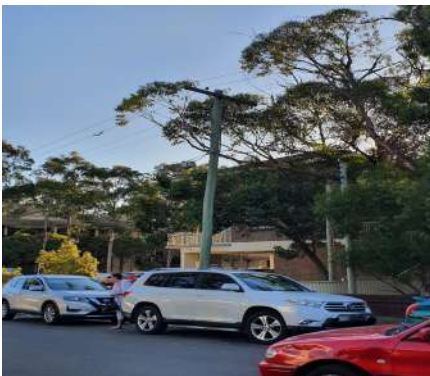
● 교통 & 환경분야 자료조사 정리

- 시드니는 눈이 안온은 곳이라 도로 중앙 선이 흰색
- 학교앞 40키로미터 속도 규제
- 호주는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스티로폼 일회용 컵을 사용, 재활용 선진국은 아님.
- 호주 모든 전봇대는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들어져 썩지않고 100년 이상 간다는 친환경 전봇대임.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위쪽에 철심만 박혀 있음.
- 수도물 식수 가능
- 자연 자원은 풍부하나 원전이 없어 에너지 자원을 아끼는 풍토. 예를들면 호텔 수건을 걸어놓으면 다음날 또 쓰는 것으로 알고 바꿔주지 않으며, 개인면도기, 칫솔 등 일회용 제품은 거의 없음.
- 로얄보타닉 식물원안의 무인주차요금은 호주인들의 준법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도시계획 및 경관분야 자료조사 정리

- 호주는 도시계획시 먼저 숲을 구성하고 그 사이에 집을 하나씩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고층건물은 하버브릿지 다리쪽을 제외하고는 없다. 시드니항구는 3대 미항이라 항구를 지키는 것이 미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수전체로 봐도 지하철 들어가는 쪽만 고층건물 허가를 내준다.
- 건물에 간판 1개, 네온사인은 안되는 법적규제가 있음, 이유는 전기세가 비싸기도 함. 또한 개인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될수 있는 현수막도 규제 대상이 됨. 담당자는 시드니에서 현수막을 볼 수 없었음.
- 호주는 가지치기는 최소한의 개념으로 사람이 불편할 때만 한다. 그래서 운전할때나 주차할 때 위험해서 창문을 잘 열지 않는다고 함.



복지 & 문화분야 자료조사 정리

- 캥거루가 호주의 국장이다.
- 영국의 영향으로 럭비를 제일 좋아한다.
- 공권력이 강한나라여서 군인, 소방관, 경찰, 공무원이 인정받는다. 군인중 공군을 제일 우대하며, 공군은 1만 3천명, 육군 3만명, 해군 1만7천명이 있음.
- 호주는 커피가 유명한게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유명
- 동네마다 묘지가 있는 이유는 죽은 가족을 그리워 할때마다 찾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병원이 닫힌 시간에 몸이 아프면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의사가 집으로 찾아와 진료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함.



삶의 실체를 이해하고 조직해야 하는 정치가에게 가장 유효한 공부
바로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낯선 '삶의 현장' 으로 떠나는 공부다!!

“강을 건너는 일은 이편에서 저편으로,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밀실에서 광장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문명사적 사건이다.”

- 경향신문 사설 중에서 -